



친환경 국토계획,
연구개발형 엔지니어링 선도적 역할

최상석 (주)동호 부사장

우리나라 국토개발 분야의 산업발전을 위하여 28년간 외길을 걸어온 최상석 부사장은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엔지니어링 R&D 문화 정착화, 건설엔지니어링의 산업재산권화로 기술의 고급화, 국토환경의 보존기술개발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도시계획기술사 자격증을 비롯하여 관련된 자격증을 40개나 보유함으로써 준비된 기술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주)동호 최상석 부사장과 인터뷰를 통해 그의 인생관과 경영철학을 들어본다.

- 일 시 : 2008년 4월 25일 11:00
- 장 소 : (주)동호 부사장실
- 참석자 : 최상석 부사장, 한국기술사회 정무용 홍보위원장, 김경수 과장, 노우석 사원

부사장님의 주요 약력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1983년도 성균관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함과 동시에 대림엔지니어링을 입사하여 전문엔지니어의 길로 시작했지만 사실 그 이전에 국립삼척공업고등전문학교(5년제) 토목과를 졸업 후 춘천시청 도시과에서 공무원으로서 사회의 첫 발을 시작했습니다.

계획전문가로서 능력을 받기위해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그리고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에서 지반공학으로 석사과정 수료, 2005년에는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개발경영을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학위논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동호 부설 건설기술연구소 소장에서 전략사업담당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새로운 각오로 뛰고 있습니다.

기술사로서 보람되고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약 30년 동안 쉬지 않고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그 건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지만 사실 내세울만한 프로젝트는 별로 없는 것 같

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고객만족에 있어 부족함을 항상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다 더 큰 보람된 프로젝트가 기대되기 때문이지요. 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젝트는 인천국제공항 프로젝트 중 SOC(민자유치사업)에서 양대 항공사에서 경합을 했을 때 8개 프로젝트 모두 제가 PM을 하면서 수주했던 것이 기억에 남아있고, 지금은 '청라지구 개발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됐지만 당초에는 '김포 매립지토지용구상'이라는 연구용역을 모태로 해서 현재 동호에서 수행하게 된 계기가 되었기에 기억에 남아 있으며,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도 내세울 수 있는 프로젝트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부산·경남권 경마장건설사업도 있습니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회사나 개인적으로나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새만금 프로젝트로 볼 수 있겠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참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뉴타운 개발모델 연구를 통해 한국형 농어촌 뉴타운 사업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쪽의 해외용역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자격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주변에서 자격증 수집가라고 핀잔을 주곤 하지만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 관련된 자격증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많은 자격증을 갖게 된 배경이지요.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도시계획기술사이고 그 외에 문화재수리기술자(조경), 산림토목기술자, CCIM(상업용부동산투자분석사), CPM(자산관리사), 물류관리사, 풍수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의 생활신조나 좌우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갖고 있는 생활신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라면서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바탕이 생활의 기본 기조이며, 행동의 원칙은 농심(農心)으로 행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뜻의 '이농심행 무불성사(以農心行 無不成事)'라는 좌우명으로 생활을 합니다.

또한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이 필요할 때 쇠로 만든 벼루가 갈아서 뚫어졌다는 뜻의 '마천철연(磨穿鐵硯)'이라는 명언을 머릿속에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 업무 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회 활동이 있으신지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비상근전문위원과 서울시 건설심의위원, 동대문구 도시계획위원, 서울지방법원의 건설감정인, 대한상사 중재위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소방방재청), 풍수해종합대책위원, 건설기술평가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교육평가위원 등으로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내리신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그토록 소망하던 아들을 주셔서 현재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늦게 본 자식이라 함께 돌보다 보니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제 나이보다 훨씬 젊게 보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다 보니 엄마, 아빠가 젊게 보여야 하는 책임감(?)도 있고 해서 가끔씩 눈높이를 자식에 맞추어 살다보니 젊어지는 기분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아내 정경숙 님은 자식양육에 전업을 하시다가 최근 사회활동을 하고 있지요.

끝으로 기술사회와 기술사 후배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조언해주세요.

지난 반세기 동안 근대화 단계와 정보화 단계를 거쳐 현재 무한 경쟁시대의 싱크탱크 역할이 한국기술사회의 사명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3만 3천여 기술사들의 대변인 역할을 잘 해왔지만 우리 기술사의 권익보호와 역량증대를 위해 우리 손으로 반듯한 기술사 회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건이 조성된다면 모든 기술자들이 다 참여하는 과학·기술자 연금제도를 통한 복지제도도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후배기술사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기술의 창조는 현장에서 구해야 하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에서 끊임없는 도전을 구가할 때만이 조직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광속도로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살아남는 기술자가 되기 위해선 새로운 도전에 또 도전하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